

2021년 중국 주요 정책방향과 시사점

중국은 지난 1~2월 지방양회와 3월 전국 양회를 개최, 2020년 경제성과를 되돌아보고 2021년 목표를 제시했다. 코로나19 충격으로 전국 31개 성시중 대부분의 지역에서 당초 제시했던 경제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, 20개 지역은 전국 경제성장률(2.3%)을 상회하였다. 주요 해외 및 중국 연구기관은 기저효과를 감안하여 2021년 경제성장률을 7~9%로 전망한 가운데,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재확산, 지방정부 부채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6% 이상(지방정부 평균은 7% 내외)의 보수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.

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, 정책 방향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. 올해는 과학기술 역량 강화, 내수 확대, 탄소중립 실현 등 3가지 방면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.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 기술자립 실현을 위해 5G,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하는 한편 첨단 제조업과 디지털 경제 중심의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 자체 산업망 구축에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. 한편 내부시장 의존도를 극대화하는 ‘쌍순환’ 전략을 경제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삼고 소비진작 등 내수 확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. 또한 206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설비 증설 등 녹색성장전략도 중요한 의제로 부상함에 따라 저탄소 성장모델 구축 분야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.

01. 2021년 양회(兩會) 개요

- ‘양회(兩會)’는 국정 운영의 주요 방향이 결정되는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
 -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회의(전인대)와 최고 정책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(정협)가 매년 3월에 함께 개최되며 이를 ‘양회(兩會)’로 통칭
 - 1~2월 개최하는 각 지방양회에서 2020년 경제성과를 돌아보고 2021년 주요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, 3월 개최되는 전국 양회에서 종합적인 정책 추진방향 제시
 - 2020년 양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례적으로 3월이 아닌 5월에 개최되었으며,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음
- 특히 2021년은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자 14차 5개년(2021~2025)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로,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 방향의 구체적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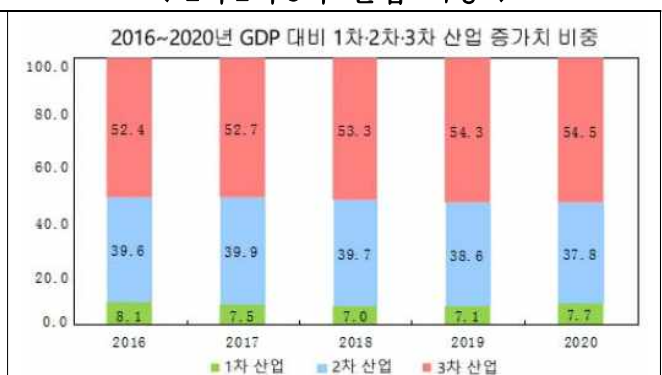
02. 2020년 주요 경제 실적 및 2021년 목표

- 2020년 중국 GDP는 2.3% 증가한 101조 5,986억 위안(약 1경 7천조원)을 기록해 사상 처음 100조 위안을 상회하였고, 세계 주요 선진국들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달성함
 - 코로나19로 1/4분기에는 6.8% 하락하였으나,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‘V’자 반등을 실현 (-6.8%(1Q) → 3.2%(2Q) → 4.9%(3Q) → 6.5%(4Q))
 - *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2.0% 증가한 72,447위안(약 1257만원)을 달성함
 - 1차 산업 증가액은 3% 늘어난 7조 7,754억 위안, 2차 산업은 2.6% 늘어난 38조 4,255억 위안, 3차 산업은 2.1% 늘어난 55조 3,977억 위안으로 집계됨
 - 전체 GDP 대비 1차 산업은 7.7%, 2차 산업은 37.8%, 3차 산업은 54.5%를 차지함

〈 중국 경제성장률 추이 〉



〈 1차·2차·3차 산업 비중 〉



자료 : 국가 통계국

- 2020년 중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소매판매가 3.9% 감소하였으나, 경제활동을 재개하면서 고정자산투자, 수출 등 지표가 경기회복을 이끌었음

〈 중국 주요 경제 지표 〉

구분	2016	2017	2018	2019	2020
경제성장률 (%)	6.8	6.9	6.7	6.1	2.3
소비시장 성장률 (%)	10.4	10.2	9.0	8.0	-3.9
고정자산투자 증감률 (%)	7.9	7.0	5.9	5.1	2.9
수출 금액 (억 달러)	20,974	22,635	24,874	24,984	25,906
수출 증감률 (%)	-7.7	7.9	9.9	0.5	3.6

출처: 국가 통계국, 해관총서

- 2021년은 코로나19의 재확산, 지방정부 부채 등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전국 6.0%이상, 지방정부 평균 7%의 보수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설정

- 2020년 코로나19 충격으로 대부분의 지역은 당초 목표치에는 못 미치나 20개 지역에서 전국 경제성장률(2.3%)을 상회했으며, 코로나19의 직격탄을 입은 후베이성만 5.0% 역성장
- 각 지방정부의 2021년 목표치 평균은 7~7.2%이며, 후베이는 손실에 대한 기저효과로, 하이난성은 자유무역항 중점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로 각각 10% 이상의 목표를 설정
- 2021년 양회(전인대)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방양회 결과에 비해 보수적인 수치인 6% 이상으로 발표, 향후 경제정책 정상화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 예상

〈 중국 31개 성시 지역별 GDP 규모 및 목표 〉

(단위 : 억 위안, %, %)

지역	2020년 GDP		목표 및 실제 수치		
	규모	전국 비중	2020년 목표	2020년 실제	2021년 목표
전국	1015986.2	100%	無	2.3	6%이상
광둥(廣東)	110760.9	10.9%	6.0	2.3	6%이상
장수(江蘇)	102718.98	10.1%	6.0	3.7	6%이상
산둥(山東)	73129	7.2%	6.0	3.6	6%이상
저장(浙江)	64613	6.4%	6-6.5	3.6	6.5%이상
허난(河南)	54997.07	5.4%	7.0	1.3	7%이상
쓰촨(四川)	48598.8	4.8%	전국비 2%↑	3.8	7%이상
푸젠(福建)	43903.89	4.3%	7-7.5	3.3	7.5%내외
후베이(湖北)	43443.46	4.3%	7.5	-5.0	10%이상
후난(湖南)	41781.49	4.1%	7.5	3.8	7%이상
상하이(上海)	38700.58	3.8%	6.0	1.7	6%이상
안후이(安徽)	38680	3.8%	7.5	3.9	8%이상
허베이(河北)	36206.9	3.6%	6.5	3.9	-
베이징(北京)	36102.6	3.6%	6.0	1.2	6%이상
샨시(陝西)	26181.86	2.6%	6.5	2.2	6.5%내외
장시(江西)	25691.5	2.5%	8.0	3.8	8.00%
랴오닝(遼寧)	25115	2.5%	6.0	0.6	6%이상
충칭(重慶)	25002.79	2.5%	6.0	3.9	6%이상
윈난(云南)	24521.9	2.4%	전국평균↑	4.0	8%이상
광시(广西)	22156.69	2.2%	6-6.5	3.7	7.5%이상
구이저우(貴州)	17826.56	1.8%	8.0	4.5	8%내외
산시(山西)	17651.93	1.7%	6.1	3.6	8%
네이멍구(內蒙古)	17360	1.7%	6.0	0.2	6%내외
텐진(天津)	14083.73	1.4%	5.0	1.5	6.50%
신장(新疆)	13797.58	1.4%	5.5	3.4	6.5%내외
헤이룽장(黑龍江)	13698.5	1.3%	5.0	1.0	-
지린(吉林)	12311.32	1.2%	5-6	2.4	6-7%
간수(甘肅)	9016.7	0.9%	6.0	3.9	6.50%
하이난(海南)	5532.39	0.5%	6.5	3.5	10%이상
닝샤(宁夏)	3920.55	0.4%	6.5	2.6	7%이상
칭하이(青海)	3005.92	0.3%	-	1.2	6%이상
티베트(西藏)	1902.74	0.2%	9.0	7.8	9%이상

출처 : 각 지방정부 양회 정부공작보고

- 해외 및 중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은 코로나19 충격의 기저효과로 인해 2021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~8% 수준으로 전망함
 - IMF(7.9%), World Bank(7.9%), OECD(8.0%), ADB(7.7%), 중국사회과학원 (7.8%)

[참고]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한 2021년 중국 정부의 주요 목표는 ▲경제성장률 6% 이상 달성, ▲도시 신규취업 1100만명 이상 달성, ▲도시 실업률 5.5% 내외 달성, ▲소비자 물가 상승률 3% 내외 달성, ▲수출입의 완만한 성장과 국제수지 균형, ▲국민소득의 안정적 성장과 생태환경의 질적 개선, ▲GDP단위당 에너지 소비량 3% 내외 감소, ▲주요 오염물 배출량의 지속적인 저감, ▲식량생산 1.3조근(6억 5000만 톤) 이상 유지 등임

03. 2021년 주요 경제정책 방향

- 1~2월 지방양회에서 발표된 주요 정책들은 작년 12월 개최된 중앙경제공작회의¹⁾에서 논의된 8대 중점 과제*와 유사
 - * 국가 전략적 과학기술 역량 강화, 산업망·공급망 강화 및 자주화 능력 제고, 내수확대, 개혁개방 전면추진, 중자 및 경작지 문제 해결, 반독점 강화 및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, 대도시 부동산 문제 해결, 탄소중립시대 준비 등 8대 중점 과제를 제시
- 2021년 중국 정부는 1) 과학기술 혁신, 2) 내수 확대 그리고 3) 녹색발전 등 3대 분야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
 - 2021년 지방양회의 10대 키워드는 △쌍순환 新发展모델, △탈빈곤, △디지털경제, △디지털인민폐, △신인프라건설(新基建), △산업현대화, △탄소배출 정점(碳达峰), △과학기술 혁신, △감세강비(减税降费), △주택 임대 등으로 분석(신화사, 2021. 2. 24)

1 | 과학기술 혁신

- 첨단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미·중간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과학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 정책을 구체화하고 있음
 - ‘과학기술 혁신(科技创新)’은 제14차 5개년 계획과 2035년 중장기 비전 목표 개요의 11가지 과제 중 1순위 과제로 선정
 - 한국과 주요 외신은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이 자국의 과거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젝트인 ‘중국제조 2025’를 사실상 부활시켰다고 평가

1) 매년 12월 중국 지도부가 한 자리에 모여 한 해의 경제 업무를 돌아보고 그 다음해의 경제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회의로, 여기서 논의된 내용은 이듬해 3월에 열리는 양회 안건으로 상정

◎ 이번 양회에서 승인된 14차 5개년 계획 초안에는 희토류를 비롯한 신소재, 로봇 등 8대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

- ▲희토류 등 신소재 ▲로봇 공학 ▲항공기 엔진 ▲신에너지차 및 스마트카 ▲농업 기계 ▲고속철, 대형 LNG 운반선, C919 대형 여객기 등 중대 기술 장비 ▲첨단 의료 장비 및 신약 ▲ 베이더우(北斗)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이 8대 산업에 포함

◎ 2035년까지 중장기적 목표로는 7대 첨단 과학기술 영역 연구에서 10년 동안 칼을 하나 가는 정신(十年磨一劍)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제시

- ▲인공지능, ▲양자컴퓨팅, ▲반도체, ▲뇌과학, ▲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, ▲우주심해 탐사, ▲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등 7대 분야

◎ 전국 31개 성시 중 20개 지방정부는 양회에서 3대 과제 안에 포함시켰으며, 그중 베이징, 충칭, 푸젠, 지린 등 9개 지역은 1순위 과제로 선정

- ▶ **(베이징)** 중관촌, 창핑, 화이러우 국립 혁신연구센터 건설 가속화 등 혁신생태계 구축, 혁신 인재 발굴 및 유치를 위해 국제학교, 국제병원, 국제 학술 및 생활환경 마련, 혁신 및 기업가 정신 고양, IT·헬스케어·스마트 팩토리·5G·블록체인·반도체·신소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 마련
- ▶ **(저장성)** 제조업 기술혁신을 위해 하이테크 3,000개, 과학기술형 중소기업 8,000개의 신규 기업 육성, 전국 R&D 투자중 성 기초연구개발비 비중 1% 이상 증액, G60·닝보융합 과학기술혁신회랑 조성, 성급 제조혁신센터 3곳, 기술혁신센터 5곳, 중점기업연구원 30곳 증설, 기술거래금액 1000억 위안 달성, 디지털 경제를 ‘1호공정’으로 규정
- ▶ **(충칭시)** 혁신주도성장 및 국가급 과학기술센터 건설 지속 추진을 11대 중요임무 중 1위로 선정, 서부(충칭)과학성 건설, 과학기술 인재 육성, 청위(成渝)종합과학기술센터 건설 제안
- ▶ **(푸젠성)** 푸시아취안(福厦泉) 국가자주창신 시범구 건설 조속 추진, 성급이상 하이테크 기업 1만개 이상 육성, R&D 투자 20% 이상 확대, 성급 과학기술 중대 프로젝트 10개 이상 실시, 성급 중창공간(창업공간) 20개 이상 신설
- ▶ **(지린성)** 창춘 국가지역혁신센터, 창춘 국가혁신 시범구, 창춘 응용화학 국립 연구센터 등 구축, 산학연 통합 혁신 플랫폼, 기술거래 네트워크 플랫폼 등 구축을 통해 과학기술의 산업화 지원, 지린 및 창춘 지식재산권보호센터 건설

- 쌍순환(双循环) 전략²⁾ 이 향후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채택된 만큼 올해 다수의 지방 양회에서 2021년 소매판매 목표를 연간 평균 8.6%로 설정하여 코로나19 이전의 2019년 목표치에 근접
 - 하이난, 광시, 산시(山西), 윈난, 스촨 등 성에서는 10% 이상의 증가율을, 허난 안후이, 닝샤, 산시(陝西), 충칭, 간쑤 등 지역에서는 7% 이상의 증가율을 목표치로 설정
 - 중국 내수 확대 정책의 실제 집행자인 각 지방정부는 전통소비, 신형소비, 공공 및 향촌 소비, 국제소비센터도시 건설 등 분야에 초점을 맞춤
 - 13개 성시에서 자동차 하향(汽车下乡·농촌보급) 및 가전제품 이구환신(以旧换新·현 것을 새 것으로 교환) 정책을 추진하고, 24개 성시에서 디지털 소비의 신발전 모델을 강조
 - 베이징, 후난, 하이난 등 10개 지역에서 국제소비중심도시(国际消费中心城市) 건설을 언급
- ▶ **(베이징)**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, 온라인 교육, 재택 근무 촉진, 면세점 발전 촉진 계획 완비, 베이징에 국내외 저명 브랜드의 역내 1호 매장 설립 추진
 - ▶ **(광저우)** 컨벤션 규모를 늘려 매년 45개 이상의 국제 전시회를 포함해 총 7만 개의 각종 회의를 개최하며, △유행의 도시, △컨벤션 도시, △전자상거래 도시, △미식(美食)도시, △고객 맞춤형 도시 등 5대 소비 도시로 도약할 계획
 - ▶ **(하이난)** 면세 사업 확대를 통한 면세 판매액 600억 위안(전년 320억 위안), 소매 판매 증가율 15% 달성 (성내 면세점 9개로 확충)
 - ▶ **(산시성)** 디지털경제, 정보소비, 친환경소비, 스마트소비, 건강소비 발전
 - ▶ **(허난성)** 온라인 소매, 이러닝, 원격 의료 등 온라인 소비 진작, 교육·의료·양로 등 공공서비스 지출 확대
 - ▶ **(광시성)** 비즈니스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확대 견인, ‘클라우드 소비’ 촉진
 - ▶ **(후베이성)** 우한 국제 소비 중심 도시 건설 지원, 야간 경제, 휴일 경제 및 면세 경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제안
 - ▶ **(상하이)** 국제소비중심도시 건설, 5월 5일 쇼핑축제 등 소비 촉진 활동 시행, 온라인·경험·건강소비 등 신유형 소비 적극 개발, 야간 경제 및 브랜드 경제를 구축

2) 외적으로 수출·개혁 개방을 지속하면서 대내적으로는 내수를 키우고 활성화시켜 내순환(국내 시장)과 외순환(국제 시장)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자는 전략

- 기후변화에 대한 위기감으로 주요국의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, 중국 시진핑 주석은 작년 9월 유엔총회 연설에서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 정점(碳达峰)을 찍은 뒤,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함(碳中和)
- 이번 3월 양회에서는 2025년 비화석 에너지 비중을 현재 15% 수준에서 20%로 올리고, 동북3성, 네이멍구자치구, 신장자치구, 티베트자치구, 윈난성, 쓰촨성 등 지역에 태양광·풍력·수력 발전 시설을 결집한 초대형 청정에너지 클러스터(기지)를 조성할 계획임을 밝힘
- 중국 최대 전력망 국유기업인 국가전망공사(國家電網公司·State Grid)는 450GW인 풍력과 태양광 설치량을 2030년까지 1200GW로 확대하는 자체 탄소중립 계획을 발표
-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탄소 배출 감축이 2021년 8대 핵심 사업에 포함된 후 각 지방 양회에서는 탄소배출 정점 및 탄소중립에 관한 내용이 여러 차례 언급됨
 - 26개 성시는 탄소배출 총량규제, 석탄연료 소비 비중 축소, 철강·건설·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의 녹색화 추진, 저탄소 산업단지 건설,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등으로 정책을 구체화

- ▶ **(베이징)** 탄소 중립을 위한 명확한 일정과 로드맵 제시, 미세먼저·오존·온실가스 공동 관리 강화, 탄소배출량의 강도와 총량 관리, 에너지 구조조정 및 교통·건설 분야의 에너지 절약 촉진
- ▶ **(톈진시)** 탄소배출 정점 행동방안 조속한 제정 및 실시, 철강 등 중점산업의 석탄소비 조기 정점 달성, 공업의 녹색화 추진
- ▶ **(저장성)** 저탄소 산업단지(工业园区) 건설 및 제로 탄소 시스템 시범 운영, 2021년 非화석에너지 비중을 20.8%로 높이고, 석탄 화력 발전 설비의 비율을 2%p 감소
- ▶ **(상하이)** 탄소배출총량과 강도를 모두 통제하고 석탄연료 소비 비중을 축소, 탄소배출정점 행동방안 제정 및 실시,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조속한 건설
- ▶ **(산시山西성)** 철강, 건설, 석유화학 등 전통 산업의 녹색화 추진 가속화, 탄광의 녹색 지능화 개발, 전력 현물시장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고, 에너지 인터넷망 건설
- ▶ **(랴오닝성)** 탄소배출 정점 행동계획 준비 및 시행, 풍력·태양광 및 기타 재생가능 에너지원 적극 개발, 수소 에너지의 대규모 응용 및 장비 개발, 탄소거래시장 건설 및 거래 촉진
- ▶ **(허베이성)**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, 탄소 금융 적극 개발, 녹색 저탄소 순환발전을 위한 경제 시스템 구축

04. 결론 및 시사점

- 이번 양회에서 제시한 경제성장률, 소비, 일자리 목표치는 전반적으로 2019년 수준을 회복하여 중국 경제는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하여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있음을 확인
 - 중국 정부는 2035년 미국 경제를 추월할 것으로 목표로 삼았으나, 주요 글로벌 연구 기관은 2027~2028년 중국의 국내총생산(GDP)은 미국을 앞지를 것이라 전망³⁾
- 중국 정부는 2035년 미국 추월에 대비하여 ①과학기술 역량 강화, ②내수시장 확대, ③탄소중립 실현 방면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
 - 양회에서 제시한 희토류를 비롯한 신소재, 로봇 등 8대 산업과 인공지능, 양자컴퓨팅 등 7대 첨단기술 육성을 통해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,
 - 쌍순환 전략을 통해 강력한 내수시장 형성하여 글로벌 소비시장에서 잠재력을 확대하고,
 -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, 풍력,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여 2030년 탄소 배출 정점·2060년 탄소제로 실현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
- 미·중간 패권 경쟁과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 속 우리 수출기업들은 중국의 경제동향과 정책 향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주목해야함
 - 중국의 기술 자립도가 향상되면서 중간재 수입의존도 하락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. 가운데, 우리 기업들도 중국이 필요로 하는 고급 중간재 생산을 위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는 한편,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
 - 중산층 확대와 함께 중국 소비 시장은 대중화를 넘어 고급화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,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비대면 新유통방식에 대한 적응과 노력이 필요함
 - 향후 태양광 셀·모듈, 풍력타워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부품소재의 중국시장 진출과 저탄소 설비 투자 확대 및 저탄소 신기술 개발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

3) 미국 브루킹스연구소, 영국 경제경영연구소(CEBR), 일본경제연구센터(JCER) 등 주요국의 싱크탱크에서 발표